

# 1026억 투입 '함평천지한우' 저력 키운다

### 함평군, 한우브랜드 유통활성화 종합계획 마련

### 혈통등록 95% 이상 달성 등 5대 분야 29개 사업

함평군이 '상생 발전 한우산업 실현'을 비전으로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유통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 본격 추진에 나섰다.

함평군은 23일 "현재의 한우산업은 사육두수 증가로 수급불안 우려, 수입 축산물 개방화, 한우 고급육 사육량 및 수 감소, 자연교배로 인한 한우개량 역행, 사료값 인상 등 각종 문제에

봉착해 있다"며 "분야별 문제 해결 및 종합 발전 방안 마련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설정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2025년까지 함평 한우 혈통등록 95% 이상 및 육질등급 1등급 판정 90% 이상 달성, 축산물 육가공장 설치를 통한 한우 생산·가공·유통·판매 일원화 등을 목표로 한다.

군은 이를 위해 5대 분야 29개 사업에 1026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분야별 주요사업은 ▲한우산업 수급조절 4개 사업 24억 원 ▲혈통등록 한우개량 촉진 6개 사업 26억 원이다.

또 ▲고급육 생산 브랜드 차별화 6개 사업 47억 원 ▲조사료 생산 사료비 절감 7개 사업 285억 원 ▲육가공장 설치 및 브랜드 유통활성화 6개 사업 643억 원 등도 추진한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국립축산과학원 이전, 명암축산농공단지 조성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신규 시책사업도 다수 포함돼 있어 지역 축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 대표산업인 한우산업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도 설 자리가 없다는 인식하에 체계적·집중적으로 한우 산업을 관리·육성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 함평천지한우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경제 발전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기자



## 신안 결혼이주여성-새마을문고회

### 5개월간 동행 멘토링 결연식 개최

신안군은 5월 20일 세계인의날을 맞아 이주여성가족센터에서는 '걱정말아요 그대'라는 주제로 결혼이민여성과 새마을문고회가 멘토링 결연식 개최했다.

이날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등 4개국의 결혼이민여성 17명과 새마을문고 각 읍면 회장단 17명 총 34명으로 구성된 멘토는 결혼이민여성의 읍면에서 봉사활동과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문고 회장단들이 멘토가 되어 한국으로 결혼한 3~5년 이내의 결혼이민자가 멘티가 되어 한국역사와 언어·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멘토링 사업은 5개월간 정기 모임과 일대일 개별 모임을 통하여 멘토가 멘티에게 신안군 알리기, 한국음식체험, 생생경제 금융교실, 한국문화체험, 건강한 임신과 출산 등 읍·면 지역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면서 안정적인 한국 정착 도우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이명주기자

## 무안군, 쌀 베이킹 과정 교육 성료

### 쌀·지역 농산물 어울림...창업·실생활 도움되는 메뉴 개발

무안군은 쌀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하고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에서 쌀 베이킹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7일까지 8회에 걸쳐 농업인과 소비자 등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강사와 교육생들은 양파 쌀 쿠키, 연근 쌀 카스텔라 등 우리 쌀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베이킹 메뉴

개발과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교육 수료생인 이옥자 씨는 "자연과 실습을 통해 창업아이디어 연계는 물론 실생활에서도 활용 가능한 메뉴를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지속적인 메뉴 개발과 노하우 전달을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영암군, 전국 최초 미등록 외국인 확진자 시설격리 비용 일체 지원

### 자발적 검사 유도도 코로나 확산 차단 기여할 것으로 기대



영암군은 미등록 외국인이 확진되어 자가격리시 일체 비용을 지원하기

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내용은 전국 최초로 시행

되는 대책으로서 5월 들어 발생한 확진자 8명 모두 이슬람 종교행사와 관련된 외국인으로서 일부 미등록 외국인이 시설격리 비용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원활한 격리와 군의 안전을 위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전격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전동평 군수는 지난 5월 22일 현대상호사원아파트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김영록 전남도지사에 대해 미등록 외국인의 자발적 검사유도와 검사율 제고를 위한 맞춤형 대책임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세밀하고 정교한 방역대책이라며 높이 평가하였으며 타시군에도 적극 시범검토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실제로 이번 전남도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지원대책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영암군은 이번 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현대상호중공업, 농공단지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한 대형 기업체 뿐만 아니라 고무마 농장 등 소규모 단위로 외국인들이 산재한 곳에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이번 지원대책은 미등록 외국인들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검사를 유도하고 확진되더라도 비용걱정 없이 격리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시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적극적으로 검사에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특별히 당부의 말을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영광군수,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 파크 현장 점검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21일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인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 파크'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 파크 조성 사업은 태청산 및 장암산 일원 200ha에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태청산 안골계곡 명소화, 장암산 산림욕장, 이모빌

리티 임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에서는 소나무 숲이 아름다운 태청산 안골계곡 인근 남산2체에 양수장을 설치하여 물이 마르지 않는 계곡에서 휴식과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사방댐 1개소와 생태계류를 활용한 워터풀을 조성했다.

영광=서희권기자

## 목포시,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목포시가 2021년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정기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사업에 예산 26억원을 투입해 53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접수 장소는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이다. 참여대상은 접수마감일 현재 목포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64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 시 재산 3억원 미만인 자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실직·폐업한 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결혼이민자, 장애인 및 가족 등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가점을 부여한다.

선발된 인원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업무에 주로 투입된다.

목포=박정수기자

**2021년 완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해양치유, 깨끗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치유하는 건강증진활동

해양치유산업 완도군이 선도합니다!